

“연아언니 뒤따라 피겨 켜 될래요”

2010 정상을 향해 달린다 피겨소녀 나주초 박 소 연

“올해는 중학생이 되는 만큼 더욱 노력해 김연아 언니의 뒤를 따라갈게요. 또 시니어부 언니들과 경쟁해서 좋은 성적도 내고 싶어요”

‘제2의 김연아’를 꿈꾸는 피겨 소녀 박소연(나주초 6년)이 새해 첫 소망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동계체전 2연패 등 초등생으로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박소연은 드디어 태극마크를 달게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박소연은 8월 한태평양 국제 동계체전 노비스(13세 이하) 1위, 전국 남녀 랭킹대회 주니어 1위·종별 전체 2위 등 국내 정상급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제부터는 큰 언니(시니어부)들과 나란히 경쟁하게 되었어요. 언니들이 동생이라고 봐주지 않듯이 나도 최선을 다해 도전해 보고 싶어요.” ‘피겨 소녀’의 각오는 어린 나이 답지 않게 다부졌다.

박소연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국내서 가장 큰 피겨대회인 전국남녀종합피겨선수권대회에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량을 마음껏 펼칠 태세이다. 이제까지 13세 이하 대회에만 출전했던 그가 올해부터는 당당하게 일반부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만큼 첫 대회부터 금메달을 꿈꾸는 당찬 목표를 세운 것이다. ‘피겨요정’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박소연은 하루 10시간의

이제부터는 시니어부 경쟁

하루 10시간이상 훈련

147cm 꼬마요정 스타 예고

고된 훈련도 거뜬히 소화해 내며 대회 개막일만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오는 4월엔 국내를 벗어나 슬로베니아에서 열리는 트리글라프 토르피대회에 출전해 외국 선수들과 기량을 겨뤄볼 계획이다. 특히 이 대회는 ‘피겨소녀들의 희망’인 김연아가 처음 참가했던 국제대회이기에 박소연에게도 더욱 가슴 벅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소연의 기량은 점프 5종을 모두 마스터한 상태이다. 남은 문제는 모든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소화해 아름다운 연기

를 펼칠 수 있느냐이다.

이에 대해 박소연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스핀 연습도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자신감 넘친 표정으로 각오를 밝혔다.

하루 훈련일정을 보면 성인 선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릉빙상장에서 지내는 그는 2시간은 지상훈련, 4시간은 스케이팅이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트레이닝과 안무연습을 한다. 하루 훈련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저녁 식사 후 장소를 목동실내빙크로 옮겨 8시부터 12시까지 야간 훈련을 실시한다.

박소연은 하루 훈련 중 지상에서 실시하는 인더벌 훈련을 가장 힘들어 한다. 운동장 한바퀴를 3분내에 달려야 한다. 안되면 뒤통수까지, 비록 어린 선수지만 참고 일

러나 끝까지 달린다.

이러한 소연이의 힘든 하루 훈련을 목격하고 있는 어머니 김정숙씨는 “힘들어 할 때마다 더 강하게 다그쳐야하니 가슴이 아프죠. 소연이가 힘든 훈련을 참고, 즐길 수 있는 요령을 빨리 터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한다. 김정숙씨는 또 “한창 군것질할 나이에 체중조절을 이유로 못 먹게 하는 것도 가슴 아프다”고 토로한다.



키 147cm, 체중 35kg의 박소연에겐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는 것도 또다른 힘든 훈련이다. 평소 햄·김치·불고기를 좋아하는 그는 ‘대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군것질을 하지 않겠다’는 부모와의 약속을 꼭 지켜겠다고 다짐했다.
이제까지 김연아와 두세번 한 무대에 섰다는 그는 “김연아 언니의 점프가 너무 좋다”며 부러워 한다.
잡코대로 스핀을 돌 정도로 피겨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박소연이 국제무대에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김연아의 뒤를 이어 그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는 순간을 기대해 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조범현 감독이 6일 무등경기장 호승관에서 KBS 인기프로그램 ‘천하무적야구단’의 일일 감독으로 나서 야구 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jeans@kwangju.co.kr

‘골프지존’ 신지애 솔로 음반낸다

찬양곡 12곡 담아 3월 발매
수익금 전액 불우이웃돕기

함평골프고 출신 ‘골프지존’ 신지애(22·미래에셋)가 솔로음반을 출시한다. 신지애의 매니지먼트사 세마스스포츠마케팅은 6일 “신지애가 평소 즐겨 부르는 찬양곡 12곡을 음반에 담았으며, 4곡은 영어로 나머지는 한국어로 불렀다”면서 “이번 음반에 수록된 곡은 기독교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장르인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으로 찬양곡으로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음반은 오는 3월 발매될 예정으로 기획과 제작은 ‘라이트하우스’, 배급은 ‘웨너뮤직 코리아’가 맡았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되며 성악가가 꿈인 신지애의 막내 동생 지훈(13)군도 앨범 제작에 함께 참여했다. 골프 못지않게 노래 실력도 갖춘 신지애는 지난 2008년 가수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를 불러 싱글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신지애는 “주변의 권유로 시작했지만,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 음반 수익금을 좋은 일에 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신지애는 지난 3월 호주 골드코스트로 6주간의 전지훈련을 떠났다. 신지애는 내달 18일 태국에서 열리는 PTP LPG에 출전하며, 이어서 25일부터 4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HSBC챔피언십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조범현 감독 ‘천무단’ 특별과의 미야자키에 ‘로페즈 형제’ 뜬다

(천하무적 야구단)

광주출신 개그맨 한민관 등 포수 훈련 지도

KIA 타이거즈의 조범현 감독이 ‘천하무적야구단’과 유쾌한 만남을 가졌다. 조범현 감독이 6일 무등경기장 호승관에서 KBS 인기프로그램 ‘천하무적야구단’(이하 천무단)의 일일감독으로 나섰다. 이번 촬영은 지난달 열린 일구회 시상식에서 천무단 선수들이 조 감독에게 특별지도도를 부탁하면서 성사됐다.

앞선 5일에는 김성근 SK 와이번스 감독이 천무단의 일일 감독을 맡았다. 낯 12시부터 진행된 훈련에는 광주출신 개그맨 한민관을 비롯해 마르코, 마리오, 조빈, 김준, 이경필 코치 등 6명의 멤버가 참여했다.

‘포수 명조련사’ 조 감독은 천무단을 상대로 1시간 30분 가량 포수 수비 자세, 약송구에 대처하는 법 등 포수특별훈련을 진행했다. 최근 주전포수 이현배가 팔꿈절상을 당한 만큼 천무단에게는 천금같은 강의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 감독이 뽑은 포수감은 조빈과 김준. 기대를 모았던 마리오의 신체조건이 좋지만 하체 유연성이 떨어져 포수보다는 1루수가 적합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향을 찾은 한민관은 “포수라는 것이 공만 받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의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포수 역할이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며 “한국시리즈때 KIA를 응원했는데 올해도 2연패를 위해 많은 응원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최태원 2군 작전코치는 10여년 만에 친구와 상봉하는 기쁨을 누렸다. 촬영을 위해 광주를 찾은 원종재 피디가 최 코치와 성남중-성남고 동창이었다. 천무단의 광주 방문 이야기는 오는 23일 방영될 예정이다.



사촌형 불펜 보조... 스프링캠프 명단 43명 확정

미야자키 캠프에 ‘로페즈 형제’가 뜬다. 2010시즌을 향한 KIA 타이거즈의 스프링캠프 명단 43명이 6일 확정됐다.

광과 일본에서 진행될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지난해 투수 아킬리노 로페즈와 동행했던 야구선수 출신의 사촌형 루이스 로페즈가 불펜 보조로 뜬다.

로페즈는 11일 투수조와 함께 광에서 먼저 훈련을 시작하고, 루이스는 이들이 일본 미야자키 캠프에 합류하는 29일부터 선수단과 함께 할 예정이다.

재계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내야수 장성호도 일단 명단에 포함됐다.

신예선수들도 포진했다. 좌완 콤비인 고졸신인 심동섭·임기준과 대졸신인 내야수 홍재호가 스프링캠프에서 전력을 평가받는다. 정용운·박상혁 두 프투 2년차 좌완 투수도 첫 스프링캠프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발대로 광에 집을 둔 신용운 외 군재대 선수인 투수 차정민·김희걸·이상화도 모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손목부상으로 재활조에 머물렀던 홍세완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범현 감독은 연습경기가 진행되는 2월말 홍세완을 일본으로 불러들여 전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10 스프링캠프 선수단 명단

▲ 광 선발대(6명) : 서재용·곽정철·윤석민·신용운(이상 투수), 김상훈(포수), 이용규(외야수) ▲ 광 후발대(22명) : 이대진·고우석·이동현·이상화·김희걸·유동훈·손영민·전태현·로페즈·양현중·박경태·정용운·문현정·박상혁·심동섭·임기준·차정민·용병 미정(이상 투수), 차일목·이성우·백용환(이상 포수), 채종범(외야수) ▲ 미야자키 야수조(15명) : 김종국·최희삼·이현곤·김상현·박기남·안치홍·김신민·최유규·홍재호·이종범·김원섭·나지안·김경민·신종길·장성호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통산 303승’ 랜디존슨 메이저리그 떠난다

사이영상 5번 수상... 현역 은퇴 선언



2m7cm라는 큰 키를 앞세워 미국프로야구를 평정했던 왼손 투수 랜디 존슨(47)이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존슨은 6일(한국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22년간 활약했던 메이저리그를 떠난다고 공식 발표했다.

1988년 몬트리올 엑스포스(현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데뷔한 존슨은 시애틀(1989~1998년)-휴스턴(1998년)-에리조나(1999~2004년, 2008~2008년)-뉴욕 양키스(2005~2006년)를 거쳤고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마지막 시즌을 뛰었다.

통산 성적은 303승166패, 평균자책점 3.29. 통산 다승 순위 22위인 존슨은 통산 4천875개를 넘어 5천714개에 이어 이 부문 역대 2위에 올라 있는 전성적인 ‘닥터 K’다.

큰 키에서 뿜어나오는 시속 150km를 넘는 강속구와 예리한 슬라이더를 앞세워 9이닝당 탈삼진을 무려 10.60개나 뽑아내 1위에 올라 있다.

10차례 올스타전에 출장한 존슨은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을 1999년부터 4년 연속 받는 등 5번이나 수상했다. 2002년에는 개인 최다인 24승을 거뒀고 해마다 평균 14승씩을 수확한 승리의 보충수표였다. 탈삼진을 무려 372개나 작성한 2001년에는 커트 실링과 함께 에리조나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2004년에는 애플타를 제물로 역대 17번째 퍼펙트게임의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흐르는 세월을 비껴가지 못해 22경기에서 8승6패 평균자책점 4.88을 기록하는데 그쳤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을 떠났다. 네 차례 무릎 수술, 세 차례 허리 수술을 극복하고 오십이 가까운 나이까지 최고의 투구를 펼친 존슨은 “이렇게 오랫동안 야구를 할지 몰랐다. 난 축복받은 사람”이라면서 “더는 잘 던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은퇴) 판단을 늦추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